

## “舍” 同源字 探索

진광호\*

### — <목 차> —

- I. 序 言
- II. 舍와 同源字
  - 1. 從舍聲
  - 2. 從甘聲
  - 3. 從函(函)聲
  - 4. 從銜聲
  - 5. 從召聲
  - 6. 從監聲
  - 7. 從𩚑(𩚑)聲
  - 8. 기타
- III. 結 言

### 1. 序 言

同源字란 직·간접적으로 語源이 같거나 유사한 문자로, 이들 사이에는 독음상 필수적으로 상동하거나 상근한 관계를 가지며, 자의상에도 필히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王力은 “무릇 음과 義가 모두 비슷하거나 음이 비슷하고 義가 같은 것, 혹은 義가 비슷하고 음이 같은 문자를 동원자라 한다. 이 문자들은 모두 동일한 내원을 가진다.”<sup>1)</sup>

\*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일중대학 중국어학부 교수

1) “凡音義皆近，音近義同，或義近音同的字，叫作同源字。這些字都有著同一來源。”王力 著，《同源字字典》(商武引書館，1987)，p.3.

고 정의하였다. 詹鄞鑫은 “일반적으로 同源詞를 기록하는데 쓰이는 문자를 ‘同源字’라 칭한다. ‘同源字’에서 ‘源’이란 字形의 각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詞의 각도에서 말하는 것이다.”<sup>2)</sup>라 하여 동원자의 여부는 자형 내원의 유사성 보다는 자의와 자음의 유사성에 중점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또 “동원자 간에는 음과 음의 연계, 義와 義의 연계, 음과 義의 연계로 이는 동일한 현상에 있어 세 가지의 관찰 각도이다.”<sup>3)</sup>라 하여 음·義의 관계를 보다 강조하였다.

언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동원자란 비교적 포괄적인 어떤 한 범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의 범주에 속하면서, 동시에 독음이 같거나 근사한 문자들을 하나의 관계로 묶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同源에서의 ‘同’은 완벽히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따로 떨어져 하나하나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여러 문자들을 의미와 독음(諧聲字 포함)의 관계로 동원별로 묶어 그들 간의 어원과 연계성을 밝혀 주는 작업인 것이다. 이는 독립적으로 보이는 많은 한자를 동원의 틀로 묶어 줌으로 효율적으로 이해시키고, 교수·학습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다’, ‘담다’, ‘머금다’, ‘채우다’는 등의 의미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문자인 ‘습’자를 중심으로, 字義와 字音上 同源의 관계가 있는 문자를 고문자와 諧聲字, 《설문해자》, 그리고 字書와 韻書, 여러 經典에서의 용례를 참고로 그 의미와 이체자, 성부의 체환관계를 찾아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를 증명해보고자 한다.

## II. 습과 同源字

습자와 같거나 유사한 音義 관계를 갖고 있는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2) “凡用于記錄同源詞的文字，則稱爲“同源字”，“同源字”的“源”不是從字形角度而從詞的角度來說的。” 詹鄞鑫 著，《漢字說略》，p.260.

3) “同源字間音與音的聯系，義與義的聯系，音與義的聯系，這是同一種現象的三個觀察角度。” 같은 책 p.260.

## 1. 從含聲

《설문해자》 口部에 “숨, 𠵼也. 從口, 今聲”이라 풀이하였다. 이는 입 안에 어떤 물체를 담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흔히 ‘물다’, ‘담다’, ‘머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의미는 좀 더 확대되어 포괄적으로 어떤 공간에 무언가를 ‘담다’, ‘가두다’, ‘넣다’는 등의 의미로 나타내어진다. 從含聲의 문자 중 숨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琰

《설문》 玉部에 “送死口中玉也. 從玉含, 含亦聲”

임종 시에 입에 물려주는 옥을琰이라 한다 하였다. 《설문》에도 “含亦聲”이라 하였듯이琰은 숨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숨의 동원자임을 알 수가 있다.

蒼

《廣韻·勸韻》에 “蒼, 苗含心欲秀也”

이는 ‘꽃봉오리가 꽃을 머금고 터지려고 한다’는 뜻으로 아직 터지지 않은 꽃봉오리를 뜻한다. 성부 숨은 ‘머금다’는 뜻으로 쓰였다.

簍

《廣韻·覃韻》에 “簍, 實中竹名. 簍, 上同”

簍과 簍은 이체자로 일반적으로 속이 빈 대나무와 달리 속이 채워진 대나무를 뜻한다. 속이 채워진 대나무란 속에 담고 있다는 뜻이므로 성부 숨 역시 ‘담다’는 뜻을 갖고 있다.

洽

《廣韻·勸韻》에 “洽, 水和物”

《玉篇·水部》에 “水和泥也”

洽은 흙이나 물체가 물을 머금고 있는 것으로 흔히 진흙이나 물에 잠기다는 뜻으로 쓰인다. 성부 숨 역시 ‘머금다’는 뜻을 갖고 있다.

鉛은 물건을 담는다는 뜻으로 원래는 쇠로 만든 물건을 담는 용기일 것이다. 이에 동사 화되어 ‘담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성부 숨 역시 ‘담다’는 뜻을 갖고 있다.

啥

숨을 ‘먹다’라 풀이하였으나, 숨은 숨의 후기자로 역시 ‘머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숨을 비롯해 숨을 성부로 갖는 여러 문자는 기본적으로 ‘담다’, ‘머금다’, ‘채우다’는 범주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므로 숨의 後起字인 𪚩을 포함해 𪚪, 𪚫, 𪚬, 𪚭은 모두 숨자를 어위로 갖는 동위자라 할 수 있다.

《설문》 甘部에 “甘, 美也. 從口含一, 一, 道也”라 하여 입안에 맛있는 음식을 담고 있는 모습에서 맛있다는 의미의 美라고 풀이하였다. 실제로 羊部에 “美, 甘也”라 하였다. 따라서 甘字도 含字와 같이 입안에 ‘넣다’, ‘담다’, ‘채우다’는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含字는 胡男切로 古聲은 匣紐<sup>4)</sup>이고, 古韻은 7부<sup>5)</sup>의 문자이며, 甘은 古三切로 見紐이며 역시 古韻 7부의 문자이다. 匣紐와 見紐는 각각 喉音과 牙音으로 성모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古韻은 7부로 첩운관계이다. 따라서 두 문자는 의미도 유사하고 음도 유사하므로 동원관계로 볼 수 있다. 從甘聲의 문자 중 含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箝

5) 古韻은 段玉裁의 古韻 17부를 참고하였다.

《설문》 竹部에 “箛, 籥也. 從竹, 拊聲”

이는 입에 채우는 재갈을 뜻한다. 이는 말의 입에 물리는 도구이다. 段玉裁의 注에 “拊, 脅持也. 以竹脅持曰箛, 以鐵有所劫束曰鉗”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대나무로 만든 것은 箛이라 하고 쇠로 만든 것은 鉗이라 한다 하였다. 즉, 拊, 箛, 鉗 세 문자는 모두 강제로 입에 물리는 재갈을 뜻하며, 그 중 拊은 그 행위를 箛과 鉗은 만든 재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부 甘은 ‘물다’, ‘담다’는 의미를 뜻한다.

拊

《설문》 手部에 “拊, 脅持也. 從手, 甘聲”

‘끼우다’, ‘채우다’는 의미로 재갈을 입에 물려 채우는 행위를 나타낸다.

鉗

《설문》 金部에 “鉗, 以鐵有所劫束也. 從金, 甘聲”

쇠로 만든 입에 물리는 재갈을 뜻한다.

紺

《설문》 糸部에 “紺, 帛深青而揚赤色也. 從糸, 甘聲”

이는 비단이 짙은 청색이면서 적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다. 《釋名·釋采·帛》에 “紺, 含也. 青而含赤色也”라 하여 紺을 含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이로 보면 紺 역시 含과 동원관계임을 알 수 있다.

埴

《廣韻·覃韻》에 “埴, 埴甗”

《集韻·覃韻》에 “埴, 土器也”

이에 의하면 埴은 흙으로 빚어 만든 도가니를 뜻한다고 한다. 도가니는 토기의 일종으로 씻물을 녹여 담는 그릇을 말하므로 埴 역시 含과 동원관계라 할 수 있다.

𪔐

《集韻·勘韻》에 “𡵓, 口閉也”

口閉란 입을 다물다는 뜻이다. 형부가 從言인 것으로 보아 입안에 할 말을 담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부 甘 역시 ‘담다’는 뜻으로 동원관계이다.



𡵓

《集韻·咸韻》에 “𡵓, 𡵓, 說文, 口有所銜也. 或作𡵓.”

《集韻》에 𡵓을 𡵓의 이체자로 보았다. (아래 從兼聲 설명 참조)

甘은 𡵓과 𡵓으로 音義가 유사하며, 위에 든 從甘聲 문자는 𡵓과 같이 ‘물리다’, ‘머금다’, ‘담다’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므로 𡵓, 𡵓, 𡵓, 𡵓, 𡵓, 𡵓, 𡵓은 모두 𡵓과 동원관계의 문자들이라 할 수 있다.

### 3. 從函(函)聲

《설문》 𡵓(함)部에 “函, 舌也”라 하여 ‘혀’의 뜻으로 풀이하였으나, 갑골문에 보이는 函은 , 의 형태로 상자 안에 화살이 담겨있는 모습이다. 이에서 函은 ‘담다’, ‘넣다’, ‘상자’ 등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詩經·周頌·載芟》에 “實函斯活”의 <箋>에 “函, 含也”라 하였고, 《國語·楚語上》 “若含而函吾中”에도 “函, 入也”라 한 것은 바로 函의 원의를 풀이한 것이다. 函은 이체자로 函이라고도 쓴다. 函은 胡男切로 𡵓자와 동음이며 뜻도 유사하므로 서로 동원관계라 볼 수 있다. 從函聲의 형성자 중 𡵓의 의미를 갖는 문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위의 函자와 𡵓자의 예에서 보듯이, 성부 函과 𡵓이 서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𡵓과 函이 동원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涵

《설문》 水部에 “涵, 水澤多也. 從水, 函聲. 詩曰僭始既涵”

단옥재의 주에 “所受潤澤多也”라 하여 “물을 많이 머금어 윤택하다”라 풀이하였다. 《詩經·小雅·巧言》의 <傳>에 “涵, 容也”라 하였는데

또한 ‘답다’, ‘머금다’는 의미이다. 涵의 성부 函 역시 숨의 의미를 갖고 있다. 《方言十》의 <箋疏>에도 “洽 與涵同”이라 하였다.

菡

《廣韻·感韻》에 “菡, 菡萏”

《詩經·鄭風·山有扶蘇》에 “其華菡萏”의 釋文에 “菡萏, 荷華也. 未開曰菡萏, 已發曰芙蓉”이라 하였다. 이로 보면 菡萏은 이음절어로 꽃을 머금고 있는 꽃봉오리를 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蒼자가 꽃봉오리를 뜻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숨과 동원관계의 문자이다.

函은 숨과 동음으로 의미가 유사하며, 위에 든 從函聲 문자는 숨과 같이 ‘머금다’, ‘답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涵, 菡은 모두 숨과 동원관계의 문자들이라 할 수 있다.

#### 4. 從銜聲

銜

《說文》 金部에 “銜, 馬勒口中也. 從金行”이라 하였다. 이는 말의 입에 물리는 쇠로 만든 재갈을 뜻하며, 동사로는 ‘물리다’, ‘물다’, ‘품다’는 등의 뜻을 갖는다. 《正字通·金部》에 “銜, 凡口含物曰銜”이라 하여 입에 담는 모든 물건을 銜이라 한다고 하였다. 銜은 戶監切로 匣紐 7부로 숨과 동음이다. 銜 역시 숨과 뜻이 유사하고 음이 같은 동원관계라 할 수 있다.

#### 5. 從陷聲

《說文》 臼部에 “陷, 小阱也. 從人在臼上”이라 하여 陷을 陷穽의 원래 글자로 보았다. 원래 함정이란 사냥을 위해 땅에 구덩이를 파서 사냥감을 빠뜨려 가두어 잡는 것이다. 빠뜨려 가두는 행위는 어떤 공간 안에 넣거나 담고 에워싸는 행위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서 陷 역시 숨과 동원관계라 볼 수 있다. 陷은 戶鑑切이며 匣紐, 고운 8부이다.

슴과는 쌍성관계이며, 고운은 7부와 8부의 관계로 매우 근사하다. 從𠂔聲의 형성자 중 슴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𠂔

《설문》 口部에 “𠂔, 食也. 從口, 𠂔聲. 讀與含同”

𠂔은 음식을 입에 담고 먹는 행위를 나타는 문자이다. 그래서 《설문》도 “讀與含同”이라 하여 동원자로 보았다.

𠂔

《설문》 肉部에 “𠂔, 食肉不厭也. 從肉, 𠂔聲. 讀若陷”

𠂔을 “고기를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라 해석하였다. 이 역시 위의 𠂔과 같이 입에 음식을 가득 담고 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문자이다. 《釋名·釋飲食》에도 “𠂔, 銜也”라 하였다.

𠂔

《설문》 穴部에 “𠂔, 坎中更有坎也. 從穴𠂔, 𠂔亦聲.”

이는 구덩이 속에 또 작은 구덩이가 들어 있다는 의미로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설문》도 ‘𠂔亦聲’이라 하였다.

𠂔

《설문》 心部에 “𠂔, 憂困也. 從心, 𠂔聲”

근심스럽고 곤경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는 문자로, 역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담고 있음을 나타낸다.

𠂔

《설문》 水部에 “𠂔, 泥水𠂔𠂔也. 從水, 𠂔聲”

흙탕물이 가득 차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담다’, ‘들어있다’는 뜻을 갖고 있다.

陷



《설문》 阜部에 “陷, 高下也. 從阜, 陷聲”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단절되어 있는 지형이란 말로 낭떠러지나 깊은 함정을 뜻한다. 《大徐本 설문》에서는 “從阜從陷, 陷亦聲”이라 하여 성부 陷이 표의의 기능이 있다 하였다. 실제로 陷은 陷의 후기 형성자이다.

菡

《廣韻·感韻》에 “菡, 菡菡”

이 문자는 앞의 菡자에서 언급했듯이 꽃을 담고 있는 연의 꽃봉오리를 뜻하므로 ‘담다’는 뜻을 가진다.

餡

《字彙·食部》에 “餡, 餅中肉餡也.”(떡 속의 고기소)

《正字通·食部》에 “餡, 凡米麵食物坎其中實以雜味曰餡.”(쌀이나 밀가루 음식에서 그 속을 채우는 여러 가지 맛의 소)



餡은 위의 예에서 보듯이 만두나 떡의 속에 넣는 소를 뜻한다. 소는 안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담다’, ‘넣다’는 뜻이다.

埴

《玉篇·土部》에 “埴, 同坎”(아래 坎字조 참조)

陷은 숨과 聲同韻近이며 의미가 유사하다. 위에 든 從陷聲 문자는 모두 ‘가두다’, ‘담다’, ‘넣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숨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陷, 陷, 窪, 陷, 陷, 陷, 陷, 陷은 모두 숨과 동원 관계의 문자들이라 할 수 있다.

## 6. 從監聲

《설문》 臥部에 “監, 臨下也.”라 하여 ‘아래를 내려다 보다’라 하였다. 갑골문에 의하면, 의 형태이고, 金文은 의 형태이다. 그릇에 물을 담아 놓고 거울처럼 얼굴을 비추어보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이에서 ‘비추어 보다’라는 뜻을 가지며, 후에 거울의 재료인 金을 가해

거울 鑑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설문》의 “臨下也.”라는 해석은 인신의이다. 監자는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얼굴을 비추어보기 때문에 ‘비추다’는 뜻 이외에 ‘담다’, ‘가두다’, 혹은 ‘넘치다’라는 의미도 갖는다. 지금도 監은 監禁, 監獄과 같이 ‘가두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從監聲의 문자 중에 이러한 의미를 갖는 문자는 모두 숨과 동원관계를 가질 수 있다. 監은 古衡切 見紐 8부로 숨과는 성과 운이 근사하다. 從監聲의 형성자 중 숨과 동원관계를 갖는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籃

《설문》 竹部에 “籃, 大籊也. 從竹, 監聲”

籃은 대로 만든 큰 바구니를 뜻한다. 바구니는 물건을 담는 것이므로 이 역시 동사로 ‘담다’는 뜻을 갖는다.

檻

《설문》 木部에 “檻, 籠也. 從木, 監聲. 一曰圈”

단옥재의 주에 “許云檻籠也者謂罪人及虎豹所居.”(허신이 말한 檻은 籠이라 한 것은 죄인이나 호표를 가두는 곳을 말한다)라 하였다. 檻車라는 말은 죄인이나 맹수를 가두거나 수송하는 수레를 뜻한다. 그러므로 檻은 죄인이나 맹수를 넣고 가두는 일종의 우리이므로 이 역시 ‘담다’, ‘가두다’는 뜻을 나타낸다.

𠵼

《玉篇·口部》에 “𠵼, 食也”

《廣韻·勘韻》에 “𠵼, 食兒”

𠵼은 게걸스레 먹는다는 뜻이다. 이 역시 입에 가득 담고 게걸스레 먹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자이므로 ‘담다’는 뜻을 갖는다.

濫

《설문》 水部에 “濫, 汜也. 從水, 監聲”

濫은 ‘범람하다’, ‘흘러넘치다’는 뜻이다. 가득 담으면 흘러넘치게 되므로 이 역시 ‘담다’는 의미에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媼

《설문》 女部에 “媼, 過差也. 從女, 監聲. 論語曰小人窳斯媼矣”

媼은 ‘지나치어 그르치다’는 뜻이다. 고전에媼은濫과 의미가 상통하여 혼용하였다 한다. 단옥재의 주에도 “今字多作濫爲之……濫行而媼廢之”라 하였다. 넘치는 것 역시 과한 것에서 오는 것이므로 ‘담다’는 의미에서 발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監은 숨과 聲近韻近이며 ‘담다’는 의미로 상통한다. 위에 든 從監聲의 문자는 모두 ‘담다’, ‘가두다’, ‘넘치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숨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므로 監, 檻, 監, 濫, 媼은 모두 숨과 동원관계의 문자들이라 할 수 있다.

#### 7. 從馱(厭)聲

《설문》 甘部에 “馱, 飽也, 足也. 從甘馱”

馱는 從甘馱(연)의 회의문자로 ‘개고기를 맛있게 먹다’는 뜻이다. 그래서 《설문》은 ‘배부르다’, ‘만족하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이 의미는 후에 ‘싫증나다’로 인신되어 厭자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뱃속에 음식을 가득 담는다는 의미이므로, 역시 ‘담다’는 뜻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馱는 於鹽切로 影紐 7부의 문자이다. 影紐와 匣紐는 같이 喉音이므로 성모가 상근하며, 고운은 같이 7부로 같아 두 문자는 聲近韻同의 관계이므로 통용이 가능하다. 從馱聲의 형성자 중 숨의 의미를 갖는 문자에는 𩚑字가 있다.

𩚑,

《玉篇·食部》에 “𩚑, 飽也”

《玉篇》에서는 𩚑자 역시 ‘배부르다’라 풀이하였다. 사실 馱(厭)이 ‘싫증나다’라는 인신의로 주로 쓰이게 되자 ‘배부르다’는 의미와 구별하기 위해 ‘從食, 厭聲’의 형성자를 만들어 배부를 𩚑자를 만든 것이다. 𩚑은 馱의 후기 형성자이다.

## 8. 기타

위의 예는 성부 자체가 숨과 독음과 의미상 연관성을 갖고 있는 동원자의 예이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할 것은 성부의 의미가 형성자의 자체의 자의와는 무관하여 표음기능만을 할뿐 표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해 원래 숨과 동원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가 숨과 동원관계를 갖게 된 것은 성부가 숨이나 숨의 동원자와 체환되어 동원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從兼聲

從兼聲의 문자 중에 숨과 동원인 문자가 있다. 《설문》 秝(력)部에 “兼, 并也. 從又持秝. 兼持二禾, 兼持一禾”라 하였다. 이는 손으로 두 줄기의 벼를 쥐고 입는 모습이므로 “并”이라 풀이하였다. 兼은 ‘아우르다’, ‘겹하다’는 뜻으로 숨과는 의미상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從兼聲의 문자 중에는 숨과 동원관계가 있는 문자가 있는 것은 음운관계에 의한 성부의 체환 현상에 의한 것일 것이다. 兼은 古甘切로 見紐 7부의 문자로 甘과는 동음이며, 숨과는 성모가 근사하고 고운은 같이 7부로 聲近韻同의 첩운관계이므로 통할 수 있다.

噤

《설문》 口部에 “噤, 口有所銜也. 從口, 兼聲”

噤은 ‘입에 무엇인가를 머금다’는 뜻이다. 숨과 音義가 거의 같으므로 동원관계라 볼 수 있다. 《설문》 口部에 “噤, 噤也. 從口, 今聲”이라 하여 숨과 噤을 互訓하고 있다.

### 2) 從覃聲

從覃聲의 문자 중에도 숨과 동원관계인 문자가 있다. 《설문》 冎(후)部에 “覃, 長味也. 從冎, 鹹省聲”이라 하여 ‘깊은 맛’이라 풀이하였

다. 후에 인신되어 ‘깊다’, ‘넓다’, ‘퍼지다’는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숨과는 의미상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從覃聲의 문자 중에는 숨과 동원관계가 있는 문자가 있는데, 이 역시 성부의 체환 현상에 의한 것이다. 覃은 徒感切로 定紐 7부의 문자이다. 숨과 성모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고운은 같이 7부로 聲異韻同의 첩운관계의 문자이다. 그러므로 서로 통할 수 있다.

潭

《설문》 口部에 “潭, 含深也. 從口, 覃聲”

潭은 ‘깊이 머금다’라는 것으로 입안에 어떤 물건을 깊이 가득 담고 있다는 뜻이다. 《설문》도 “含深也”라 하여 동원관계임을 나타내었다. 음이 숨과 첩운관계로 유사하고 뜻도 거의 같다.

### 3) 從咸聲

從咸聲의 문자 중에도 숨과 동원관계인 문자가 있다. 《설문》 口部에 “咸 皆也, 悉也. 從口戌”이라 하였다. 자형의 풀이와 자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段玉裁는 從戌을 從悉의 가차로 註釋하였다. 《설문》의 ‘다’, ‘모두’의 풀이는 숨과 의미상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從咸聲의 문자 중에는 숨과 동원관계가 있는 문자가 보이는데, 이 역시 성부의 체환 현상에 의한 것이다. 咸은 胡監切로 匣紐 7부로 숨과 동음이므로 서로 통할 수 있다.

械

《설문》 木部에 “械, 篋也. 從木, 咸聲”

械은 나무로 만든 상자를 뜻한다. 상자는 물건을 담는 도구이므로 械자는 ‘담다’, ‘넣다’는 뜻을 갖는다. 朱駿聲도 《說文通訓定聲》에서 “械假借爲含”이라 하여 械과 숨을 통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문자는 동원관계라 할 수 있다.

鹹

《설문》 鹵部에 “鹹, 銜也. 北方味也. 從鹵, 咸聲”

許慎은 짠맛을 북방의 맛이라 풀이하였다. 소금을 입에 물고 짠맛을 느낀다는 것에서 銜이라 풀이를 한듯하다. 《설문》에 “鹹, 銜也”라 한 것은 두 문자가 동원관계임을 말 한 것이다.

#### 4) 從炎聲

從炎聲의 문자 중에도 ㄱ과 동원관계인 문자가 있다. 《설문》 炎部에 “炎, 火光上也, 從重火”라 하여 불꽃이나 화염을 뜻한다. 이는 ㄱ과는 의미상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從炎聲의 문자 중에는 ㄱ과 동원관계가 있는 문자가 있는데, 이 역시 성부의 체환 현상에 의한 것이다. 炎은 于廉切로 匣紐 8부의 문자이다. ㄱ과는 쌍성관계이며 고운이 7부와 8부로 상근하므로 서로 통할 수 있다.

ㄱ

《설문》 口部에 “ㄱ, 噍ㄱ也. 從口, 炎聲. 一曰噍”

ㄱ은 ‘먹다’, ‘씹다’는 의미로 이 역시 입에 담고 하는 행위이므로, ㄱ과 독음과 의미가 상통하다 할 수 있으므로 동원관계라 볼 수 있다.

#### 5) 從欠聲

從欠聲의 문자 중에도 ㄱ과 동원관계인 문자가 있다. 《설문》 欠部에 “欠, 張口气悟也. 象气從儿上出之形”이라 하였다. 이는 입을 벌려 기를 배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품’을 뜻한다. 이 역시 의미상 ㄱ과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從欠聲의 문자 중에는 ㄱ과 동원관계가 있는 문자가 있는데, 이 역시 성부의 체환 현상에 의한 것이다. 欠은 去劍切로 溪紐 8부의 문자이다. 이는 ㄱ과는 성모와 운모가 상근하므로 서로 통할 수 있다.

坎

《설문》 土部에 “坎, 陷也. 從土, 欠聲”

坎은 ‘함정’, ‘웅덩이’의 뜻이다. 위의 從𠂔聲에서 설명했듯이 𠂔이 숨과 동원관계이므로 坎 역시 숨과 동원관계가 될 수 있다. 《설문》도 “坎, 陷也”라 하여 동원관계임을 언급하였고, 《玉篇·土部》에도 “埴, 同坎”이라 하였다. 埴이 坎의 이체자인 것으로 두 문자의 동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莊子·秋水》에 “埴井之繩”라 하여 坎字 대신 埴字를 써서 웅덩이의 뜻을 나타내었다. 欠聲과 𠂔聲이 통하므로 숨과도 통할 수 있다.

### Ⅲ. 結 言

漢字 중 독음이 같거나 유사한 문자 사이에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의미상의 유사성도 갖는다. 이것이 同源字의 이론적 기초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여 ‘물다’, ‘담다’, ‘머금다’, ‘채우다’는 등의 의미로 상용되는 문자인 ‘숨’자를 중심으로 橫적으로는 同音이나 雙聲, 疊韻 관계에 있는 甘, 銜, 𠂔, 函, 𠂔, 監字들과 縱적으로는 이들을 성부로 갖는 문자, 그리고 從兼聲, 從覃聲, 從咸聲, 從炎聲, 從欠聲의 문자 중 몇 개의 동원자를 찾아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행위의 도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숨과 甘, 銜은 ‘입 안에’, 𠂔은 ‘뱃속에’, 函과 監은 ‘상자나 그릇에’ 𠂔은 ‘웅덩이에’ 담는다 이다. 또 이를 행위의 대상으로 보면, 숨과 甘, 𠂔은 ‘음식물을’, 銜은 ‘재갈을’, 函은 ‘화살을’, 監은 ‘물을’, 𠂔은 ‘사냥감을’ 담거나 가둔다 이다. 이들의 출발점에서의 의미는 도구와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독음뿐만 아니라 의미상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앞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횡적인 관계로 보아 1차 동원자라는 틀 속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성부를 중심으로 행위의 대상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형부와 결합하여 종적인 관계로 형성자를 만들어 제2차 동원자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본고에서 예를 들어 동원관계를 설명한 從某聲의 동원 형성자 그룹이다.

숨 : 琰, 蒼, 答, 洽, 鎗, 哈

甘：𦰩, 𦰪, 𦰫, 𦰬, 𦰭, 𦰮, 𦰯  
函：涵, 菡  
銜：  
𦰱：𦰲, 𦰳, 𦰴, 𦰵, 𦰶, 𦰷, 𦰸, 𦰹, 𦰺  
𦰻：𦰼, 𦰽, 𦰾, 𦰿  
𦱀(厭)：𦱁

이외에 또 하나의 유형은 ‘기타’ 부분에서 설명한 것이다. 이는 성부 자체는 동원관계가 없으나, 성부가 숨이나 숨의 동원자와 체환되어 동원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從兼聲의 𦰱, 從覃聲의 𦰲, 從咸聲의 𦰳과 𦰴, 從炎聲의 𦰵, 從欠聲의 𦰶 등의 예가 있다.

예를 든 문자들은 서로 同音이거나 쌍성, 첩운 등의 近似音의 관계에 있으면서 의미 또한 유사성과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문자들은 모두 숨字를 중심으로 일단의 동원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만약 위의 40 여개의 문자를 개별적으로 익힌다면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통의를 중심으로 형부와 성부를 바탕으로 동원자의 형적, 종적인 관계로 학습을 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모든 문자를 다 동원관계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자는 성부의 표의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아 동원관계를 밝히기 힘든 것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한 보다 많은 자료의 활용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동원자를 찾아내어 그룹화 하는 작업은 향후 문자학 연구와 한자의 교수·학습에 있어 공헌하는 바가 자못 클 것이다.

### <參考文獻>

- 許 慎,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초판, 臺灣: 漢京, 1980. 3.  
顧野王, 《玉篇》 國字整理小組  
陳彭年 等, 《宋本廣韻》4版, 黎明文化事業公司, 1981. 9.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臺灣: 鼎文書局, 1977.



《十三經注疏》 藝文印書館.

容 庚,《金文編》,臺灣: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1960.

國立臺灣大學文學院古文字研究室編,《中國文字》,1962.

李孝定,《甲骨文字集釋》初版,臺灣:中央研究院 歷史言語研究所,1965.

魯實先,《假借遡原》 臺灣版.

唐 蘭,《中國文字學》初版,臺北:洪氏出版社,1980. 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中文大辭典》5冊,中華學術院,1980. 9.

王 力,《同源字典》1版,北京:商務印書館,1987. 4.

高亨 編著,《古字通假會典》,齊魯書社出版,1989. 7.

王鳳陽,《漢字學》初版,吉林文史出版社,1989. 12.

裘錫圭,《文字學概要》再版,北京:商務印書館,1990. 4.

鄭權中 遺著,《通借字萃編》,天津古籍出版社,1990. 10.

詹鄞鑫,《漢字說略》初版,遼寧教育出版社,1991.

李大遂 編著,《簡明實用漢字學》1版,北京大學出版社,1993. 10.

殷寄明,《漢語語源義初探》1版,學林出版社,1998. 1.

許威漢,《漢語文字學概要》1版,上海大學出版社,2002. 2.

진광호,〈형성자 성부 替換 현상〉,《영남중국어문학》49집,2007. 6.

진광호,〈從甬聲 語源義 文字 探索〉,《영남중국어문학》54집,2009. 12.

### <中文提要>

一般來說音義相近,或音近義同,或音同義近的文字,叫作同源字。同源字之間,字音與字義上具有同樣或類似來源的關係。同源字的研究是一種把各各隔開的文字以字音與字義上的關係察明它們之間的語源與連繫性的作業,這對今後的文字學研究與漢字教學,會有不少貢獻。

本論文從這一思路出發,以有‘銜含’之意的‘含’字為中心,要證明跟‘含’字是否有同源關係。《說文解字》口部說“含,嚙也。從口,今聲”,就是口中含有某種東西的意思,從這兒就有‘銜含’之意。漢字當中跟‘含’字有字音與字

義上同源關係的字。例如,

含：琯, 蒼, 答, 洽, 鎗, 哈

甘：筴, 柑, 鉗, 紺, 坩, 紺, 咁

函：涵, 菡

銜：

𠂔：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籃：檻, 檻, 檻, 檻

𧢲(厭)：𧢲

此外還有聲符本身沒有同源關係, 通過聲符替換, 後來變為同源字的。例如, 從兼聲的𦵏, 從覃聲的𦵏, 從咸聲的械和鹹, 從炎聲的𦵏, 從欠聲的坎等。這些文字音韻上均有同音, 或雙聲疊韻關係, 同時意義上亦有類似性或共通性。

**關鍵詞**：含 同源字 同音 雙聲疊韻 聲符替換 通用

투 고 일 : 2011.2.25

심 사 일 : 2011.3.10~4.10

게재확정일 : 2011.4.20